

辛丑年 새해설계

“군민의 삶 바꾸는 혁신 지속 추진하겠다”



박우량 신안군수

“군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는 어려운 한 해였다”며 “올해에는 지금까지 다져온 바탕 위에 길과 마음을 열어 새로운 성과를 만들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박 군수는 새해 군정 운영을 군민 실질소득으로 이어지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세계 최대 규모 8.2GW 해상풍력과 1.8GW 태양광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1인당 600여만원의 소득을 군민들에게 연금 형식으로 배당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잉여전기 수요

해상풍력·태양광 소득 군민 배당...신성장동력 육성

사계절 꽃피는 섬·관광객 500만 시대 인프라 확충

다각화를 위해 수소차, 수소소방, 발전용 연료전기 보급 등 그린수소 자립성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섬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린 조력 발전 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개체 굴 양식산업과 아열대 과수 재배단지 조성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생태환경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사계절 꽃피는 섬’ 만들기 집중한다.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조성사업은 100년을 내다보는 지역 미래 핵심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도(라일락공원), 비금

(해당화공원), 하의(한반도 평화의 숲), 신의(춘관공원), 암태도(암석공원), 장산도(화이트공원) 등 큰 섬 6곳과 작은 섬 13곳의 ‘1004섬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침수 피해 민원과 농업용수를 해결하면서 주민쉼터 역할까지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변공원을 지속 조성할 계획이다.

군민 모두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체계 실현에도 주력한다.

군은 방문간호사를 올해 더 확대해 어르신들이 종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압해읍에 100억원 이상을 들여 가족센터와 압해읍사무소를 포함한 신안군 행복복지타운을 건립한다.

아울러 경로당 신축과 노후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CCTV 설치, 오래 되고 성능이 떨어지는 냉·난방기 교체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한다.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천사대교 개통 이후 1년간 누적 관광객이 전년 대비 113% 증가하는 등 섬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연륙·연도교 등 인프라 구축과 부족한 숙박과 식당 등 편의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획 중인 비금·추포, 압해

-화원, 신의-장산 연도교를 빠른 시일 내에 완성시키고 해상택시(유로택시)를 도입, 1004섬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천사대교 개통으로 병목 현상이 심해진 압해읍 학교리에서 송공리까지 확·포장 공사를 착공한다. 2025년에는 6km 모든 구간에서 교통 체증 없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한다.

자은 지오 관광레저타운, 마리포사 리조트의 조속 준공을 추진하고 민간편선과 민박시설 고급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박우량 군수는 “혁신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성장 없이는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 먼 길을 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양훈기자

진도항 배후지 복합산단 하반기 완공

법적 공방 진도항 석탄재 갈등 ‘협이 없음’ 종결 郡, 국민해양안전관 등 5개 사업 준공·분양 추진

진도군은 14일 “진도항 배후지 복합 산업단지를 올해 하반기 준공해 서남해안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국민해양안전관 (270억원) ▲복합항만배후단지 (443억원) ▲진도 연안여객선터미널 신설 (809억원) ▲진도항 2단계 건설사업 (430억원) 등 5개 사업으로 총 1천952억원이 투입된다.

세부 사업의 공정률은 국민해양안전관 35%, 복합항만배후단지 80%, 진도 연안여객선터미널 신설 착공, 진도항 2단계 건설사업 98% 등이다.

지난해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매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이동진 진도군수와 관계 공무원 5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발한 내용과 관련, 검찰이 ‘협이 없음’으로 결정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가 석탄재를 진도항 배후 부지에 반입하기 위해 위법행정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당국에 고발한 사건이 지난해 12월말께 광주지법검찰청 해남지청에서 ‘협이 없음’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폐기물 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매립 공사에 쓸 성토재를 당초 토사에서 석탄재 혼합

공법으로 변경해 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했다.

진도항 개발은 2014년 국·도·군비 등 총 사업비 433억원 규모의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계획 수립 후 진도항과 서방항에 52만1천834㎡ 규모 배후 단지를 조성해 상업시설, 수산물가공·신재생에너지·복합해양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항 개발 사업은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진도항 2단계 건설사업, 진도항 연안 여객선 터미널 공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사업을 마무리해 관광, 산업, 물류 인프라를 갖춘 배후지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백세권기자



명현관 해남군수 AI 방역현장 점검 최근기금농가 50개소와 철새도래지 60개소 등 전국 110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해남군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남군은 기금농장 33개소에 대해 전화 예찰과 방역실천 여부 현장 점검을 매일 실시하는 한편, 기금농장 및 철새 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사진은 명현관 해남군수가 드론을 활용한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해남=박필용기자

강진군, 만감류 브랜드 ‘탐진향’ 상표 출원

농민 브랜드 사용권리 보호·품질 향상 박차

강진군은 14일 “최근 지역내 만감류 재배농민들이 쓰고 있는 자체 브랜드 ‘탐진향’의 특허청 상표출원을 마쳤다”고 밝혔다.

만감류는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등과 같은 큰감귤류를 통칭하며 일반 감귤에 비해 늦게 수확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기존 명칭들은 제주도 감귤협회 등에서 붙인 브랜드로 타 지역 농민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강진군 농민들과 공무원이 모여 강진만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기로 뜻을 모으고 지난해 가을 강진군의 옛 지명을 차용한 ‘탐진향’ 브랜드를 완성했다.

‘탐진향’은 강진군에서 생산하는 감귤류의 과일이나 가공식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하고 앞으로 생산되는 만감류 포장박스에 브랜드를 표기해 판매할 방침이다. 브랜드 특허 권리는 강진군 소유로 관리될 예정이다.

김춘기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민들과 함께 만든 브랜드를 법적인 제재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상표 등록을 통해 강진 만감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

목포시, 지난해 공모 57건 1천378억 확보

신재생에너지·수산식품·관광 등 3대 전략산업 약진

목포시가 지난해 공모사업 57건에 선정돼 국·도비 1천378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관광 등 3대 전략산업에서 약진하면서 주목 받고 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 성과가 두드러진다.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예비문화도시 시도로 선정됐다. 예향의 역량을 집중해 2022년부터 5년간 200억원이 투입되는

법정문화도시의 이전 단계인 예비문화 도시에 낙점받은 것이다.

같은 달 고하도는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 지역으로 뽑혔다. 앞서 달리도와 외달도(이상 2019년), 울도(2020년)가 선정돼 목포는 관내 모든 유인도에서 관련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4월엔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450

억원(국도비 304억원)이 투입될 ‘전기 추진 차도선 및 전원시스템 개발·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앞서 1월에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1천억원(국도비 700억원)이 투입되는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밖에 수산식품산업 육성의 촉매제가 될 전남도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 및 육성 전략’(도비 50억원), 안전통합센터 CCTV를 112·119 상황실과 실시간 연계해 긴급상황시 즉각 대응체계를 갖추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국비 6억원) 등 사업 대상으로 결정됐다.

/목포=정해선기자

<p>장성토지【급매】</p> <p>광주에서 20분 / 장성호(댐) 2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분거리 IC확정 / 2차선 국도 접 ■ 주택,창고,커피숍,식당,(드론연습장) 추천 <p>대지 200평 → 1억8천</p> <p>감정/시세 8억5천</p> <p>▶ 급매가 → 4억2천 (용3억2천)</p> <p>010-6670-9800</p>	<p>상무지구 상가【급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상가 유흥지구 (메가박스 앞) ■ 평수 - 140평 (6층,7층) ■ 유흥주점, 빠, 룸 마사지 ■ 모든업종 가능, 즉시 입주가능, 시설비 없음 <p>062-382-5500</p>	<p>【경매교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초반,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실전 (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엔피엘전문) ④ 입장반 ⑤ 전문반 모집 (직업가능,수익가능) <p>· 전문반무료제공</p> <p>책상,컴퓨터제공,매주1회 물건스터디</p> <p>010-7384-7800</p>
---	---	---